



희망찬 새해, 대망의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한국교회가 영성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성장하는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열심히 문서선교에 헌신을 다해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인터넷방송

www.jntv.kr과 크리스찬포터널(www.cpn.kr)은 짧은 4년여 기간에 급성장해 해 온 것은 애독 애청해 주신 여러분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신문과 인터넷 tv방송은 전국에 20여개 지사와 해외 13개국 지사가 문서선교에 헌신을 다하고 있으며, 아홉

리 직원 일동은 힘을 모아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H.총연합회가 양극화 형태로 추락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교단들, 일부 대형교회들의 참담하고 추한 모습들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걸림돌이 되어졌는가... 빛과소금의 역할을 다하

지 못하고 추한 꼴로 추락한 모습들.. 마치 음녀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만 같아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언론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추락된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는 복음지로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로 전파되는 복음 매체로써 옹골진 잣대로 편측을 갖고 닦을 것입니다. 2012년 새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을 주는 신문방송.

발행인 정기남 목사 외 직원 일동 배상

한국교계 신년사, 예언자적 정신 필요한 때

2012년 희망찬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교계 연합기관과 교단 및 각 기관들이 신년메시지를 통해 시대를 품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이뤄갈 것을 다짐했다. 연합기관들은 깊어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화평을 이끌고 시대를 품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한해 북한 김정일을 비롯 세계 역사 속에 악명 높았던 독재자들이 떠났다. 한반도 정세를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는 예언자적 정신이 필요한 때이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때라고 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종훈) 김영주 총무는 “새해에는 우리 사회 안에 깊이 뿌리박힌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과 분열의 골이 메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라며 “하나님의 정의는 철저하게 약자들의 편에 서서 세워져야 한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모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牧사는 “지금 한국교회가 먼저 할 일은 영향력의 확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시대를 품고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던 예언자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는 지역과 계층 간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일치와 연합의 모델이 되어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사회 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교단 및 기관은 2012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다짐하기도 했다. 예장 통합 박위근 총회장은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100년의 총회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한 해”라며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 합동 이기창 총회장은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 교회는 역경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더 단단한 신앙을 다져왔다”며 “교단 산하 300만 성도와 100개 국가에 2,133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 설립 100년의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교단 백서, 인명록, 총회100년사 증보판 등의 책자를 발행하여 역사적 자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이장로 원장은 “한반도 위기에서 지금은 새 시대의 여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 “KPI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사회적 현안, 법률 및 정책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아주는 정책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길자연 목사, 정주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왕성교회)가 코닥 운영위원장인 정주채 목사(함상교회)를 명예훼손으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달 29일 오후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의 담당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조서를 위해 2012년 1월 3일(화)에 출두할 것을 통고해왔다고 밝혔다. 출두할 때는 발언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길자연 목사가 정주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근거는 지난 10월 천안 신대원에서 열린 제61회 고신총회에서 ‘한기총 탈퇴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주채 목사가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총회 석상에서 한 발언의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합동측 인사가 녹취록을 습득할 수 있었는지, 또, 녹취록은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녹취록을 정식으로 반출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정목사는 의아해 하고 있다.

만약 고의로 녹취록을 임의 반출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다. 총회임원회는 녹취록 반출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본 총회 총대원의 총회석상의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 다른 교단의 사람에게 임의로 제공되어 고소를 당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소식을 들은 뜻 있는 교단의 지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JTNTV(www.jntv.kr)

는 많은 기사, 사진들, 영상설교, 칼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총회장
유영섭 목사
안천교회



부총회장
지태영 목사
한빛전원교회



부총회장
박종선 장로
동천교회



서기
강철 목사
대천교회



회록서기
이계성 목사
신천교회



회계
위용찬 장로
안천교회



부회계
김선성 장로
대천교회



시찰부장
권정희 목사
송덕교회



시찰부장
박장복 장로
영암교회



선교부장
김동민 목사
창대교회



선교부부장
김일수 목사
동신교회



선교부부장
김은태 장로
동천교회



교육부장
엄광일 목사
한사랑교회



교육부부장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고사부장
지태일 목사
새빛중앙교회



재단부장
김인근 장로
송덕교회



재단부부장
추영조 장로
신천교회



재판국장
윤정현 목사
해맑음교회

근하신년 대망의 새해를 맞아
순장총회와 전국 각 노회,
지교회가 부흥성장하는
2012년이 되시며,
소망 넘치는 사역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유영섭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2012년 전국목회자 부부회복 및 교회성장세미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정도출 목사)와 목회자자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목사)

이 목회자부부의 회복과 교회성장을 위해 공동주최하고 CTS기독교TV, CBS, febc국동방송, 국민일보가 후원한 '2012년 새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목회자 부부회복 및 교회성장세미나'가 은혜 중에 마쳤다.

사전신청접수 680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마감한 이후에도 등록 신청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월 28일(월) 낮 2시부터 27일(화) 저녁까지 1박 2일간 서울에 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되었는데 세미나 첫날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도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열정으로 세미나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정도출 목사(비전교회)는 “세미나를 계획하시고 은혜중에 진행케

“설교와 목회 방향을 찾았습니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목회환경의 어려움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상임회장 송일현 목사(보라성교회)의 개회예배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광선회 목사(소망교회 원로목사),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나경일 목사(주안장로교회), 정도출 목사(비전교회), 윤보환

목사(영광교회), 김정훈 목사(축복교회),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 등으로 앞서가는 목회전략과 회복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던 은혜누림교회 홍성복 목사는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설교와 목회의 방향을 찾았습니다.”라고 했고 순복음우리교회 ‘김종만 목사’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설교자인 목회자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느꼈습니다.”라고 했으며 세계명교회 ‘윤영애’ 사모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기 원하는 삶의 지진 성도들을 목회자가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알게 된 세미나였습니다”라고 했다.

목회자자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는 “새로운 시대는 목회자 리더십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의 부흥성장은 목회자의 변화, 성장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석한 목회자 부부의 리더십을 세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소망하며 행복한 목회를 하시도록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세미나에서도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깊이 있게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목회자자모신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목회자자모신문은 오는 2012년 1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전국청소년겨울성령캠프를 경기도 평택 오산성은동산에서 진행한다. 문의는 다음과 같다.

문의 : 목회자자모신문 ☎ 02) 2207-8504 ~5 www.samoneews.kr

감리교 추락 4년... 교단지에도 비리 의혹

감사결과 전현직 간부들 명의로 수년간 차명계좌 운영 밝혀져

감독교회장 선거 문제로 4년째 교단 리더십 표류를 겪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감사에서 언급기금 사고가 발견된 데 이어,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가 수년간 차명통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4명 이름으로 된 통장 8개 발견 “뉴스미션”에 의하면 감리교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기독교타임즈>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했다. 독립채산제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직원이 본부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지급 소송’을 내 승소한바, 미지급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최근 ‘감사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했다. 본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30일 현재 <기독교타임즈>의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25억원을 넘었으며, 미지급 급여는 3억원이 넘는다. 감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지급 급여 확인과 미수금(광고, 구독, 기타 특별수익사업)에 대해 수시감사를 실시했으나 감사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 진행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감사 방해 및 감사거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진행하는 중 신문사 전·현직 간부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이 발견됐고, 이들 통장을 통해 별도의 자금관리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음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명 명의의 총 8개 통장이 존재했다. 통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직 간부들은 처음엔 사실을 부인했으나, 감사위원회가 통장사본을 제시하자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보고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했으나 ‘(통장 존재를 알린)제보자가 밝혀질 때까지는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감사위원들은 수사권이 없는바 법적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어 “<기독교타임즈>는 현재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간 또는 폐간을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 구성, 조사에 나서겠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 통장에 의해 별도 관리된 금액은 ‘상당한 액수’다. 하지만 8개의 통장에는 재해기금 모금에 사용된 통장이 3개나 포함돼 있어서(왜 개인명의 통장으로 모금했는지, 모금액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문제가 있는지는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알 수 있다.

보고서를 받은 감리교본부(감독교회장 직무대행 백현기)는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은금기금 사고와는 다른 ‘중대한 범죄사안’이라며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가칭)를 꾸려서 정밀 조사를 한 뒤, 필요할 경우 형사고



감리교 본부

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조 기독교타임즈분회(분회장 신동명, 이하 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간부들은) ‘직원들이 통장을 훔쳐갔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막대한 회사 돈을 들여 직원감시용 CCTV와 인터넷 모니터링을 위한 보안선까지 구축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악행을 거듭 자행하고 있다”며 “관련자 즉시 고발조치 및 신문사 경영투명성 확보에 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기독교타임즈>도 현직 간부는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다.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 후에도 전표까지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곽태호 목사 제주부협 제4대 대표회장 취임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이하 제주부협)는 지난 12월 16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 강동구 전호동 드마리스에서 곽태호 목사 제4대 대표회장 취임식 및 송년회를 갖고 본 협의회의 단합을 위

한 축하대회를 열어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이날 서기 전진성 목사(실무회장)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실무회장 정성택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총재 이재갑 목사는 왕상

18:30 ~ 40절로 “회고와 감사 그리고 소원 향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직전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의 이임사가 있었으며, 사무총장 광영민 목사는 회원들과 합심하여 구호제창을 한 후 사업보고, 회계보고 등 지난 1년 동안의 경과보고와 본 협의회 소식

을 전했다. 이어서 제4대 대표회장 곽태호 목사의 취임사가 있었으며, 직전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는 신임 대표회장 곽태호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박수영 목사(강사단장)는 이날 자랑스런 부흥사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광동식 목사(교문), 정기남 목사(자문/본지 대표이사)가 축사를 하고,



오선연 집사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다. 사무총장 광영민 목사의 광고에 이어 대표회장 곽태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대표회장 광 목사는 취임사에서 감사를 전하면서 제주부협이 설립 7년차를 맞아 예수사랑 부흥사 협의회와 통합을 이루고 제4대 대표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대내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검찰, CTS 감경철 회장 횡령의혹으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김영중)는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22일 오전 노량진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23일에는 감경철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폐제베컨트리클럽과 경북 안동 일직면 폐제베이트컨트리클럽 골프장 2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량진 사옥과 골프장에서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관련서류를 확보했다.

현재 검찰은 CTS가 노량진 사

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부풀려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감경철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감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감경철 회장의 횡령의혹과 관련한 진정접수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TS 측은 “회사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전 수원지법 무죄사건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을 아꼈다.

감 회장은 지난 2006년 12월 CTS 건축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뒤, 2008년 9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확정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ctstv 사옥

꿈(Dream)
사랑(Love)
행복(Happy)이 넘치는

담임목사 정기환(D.Ed.,Th.D)

대한예수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가정같은교회 ⇄ 교회같은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Th.D)
▷SBS방송설교안내: 라디오 5분 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cbs 인터넷방송 WWW.CBS.CO.KR 24시간 청취가능
▷JTNTV방송 저지스티임즈 신문방송 이사장(www.jtntv.kr www.cpj.kr)

주 소 : 420-8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9-5(전원마을)
사무실 : 032) 321-9101, 9102, 9109 전화설교 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동산 : 강원도 양주군 동면 원당리 산43-4번지

심기는분들

† 파송선교사 : Johnny, Peilgm(필리핀), 천구현(키르키스스탄), 박해영(일본), 윤장복(호주), 안성희(태국), 방영순(대만), 이원철(캄보디아), C국(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i(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화순, 김성철, 권정아, 윤신여
† 정로 : 표사중, 임월수, 김대중, 박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송영자집사, 피아노·조은지, 키보드·서승희전도인)

▣ 베델성서대학 : 매 주 토요일 오후 8:30~9:30

예배시간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일제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모요일은 할아배, 불교은 제외) 새벽 5:30
금요일기도회 밤 10:00
유치부(주일) 오후 1:00
초등부(주일) 오전 9:30
학성회(토) 오후 4:00
청년회(주일) 오후 1:30

원아오시는 길

어려움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



본지 고문 피종진 목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총재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로 접어들면서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보내고 이제 대망의 201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남과 북이 긴장된 가운데 우린 기도에도 힘써야 할 때입니다. 또한 오직 신앙으로 세상의 탐욕과 거짓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이러한 결실을 향해 자신을 극복하고, 이웃을 향해 더 많은 것으로 베풀며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 전하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지스타임즈를 전국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jntv 인터넷방송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100%로 의지하는 삶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기8:7)



예신총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

미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웨신 총회가 출발을 하였으나 창대케 되는 비전을 바라보며 어느덧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2011년을 보내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힘겨웠던 2011년이 지나가고 2012년 꿈의 새해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은 안타까운 우리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둘러 달음질을칩니다. 그리 바빠 어디를 가는지 매년 이맘때면 졸달음치는 세월에 아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간 일들에 발목이 잡혀 앞날에 매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잘못된 것들은 반성하고 잘된 일들은 더욱 반영하여 장래에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하여 지난 해 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한 총회가 되어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하나 되어 새로운 한 해를 열어 갑시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할 때 우리의 행복은 철학의 바다에 빛나는 북두칠성처럼 세상에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총회원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총회가 단합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2012년 한 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희망찬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존경하는 전국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및 사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 한 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희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런 설레임과 기대가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2012년이라는 선물 상자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래가

더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는 더 값진 보물일 것입니다. 2011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새해역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사랑과 기쁨의 좋은 선물이길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행복을 디자인 하는 가정과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해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2012년은 세계민족을 가슴에 품고 영혼구원에 열정을 다 하는 해가되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구원받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므로

권능을 받아 건전한 교회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감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재감 목사
세주부협 총재
(빛과소금교회 담임)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 아름다운 모임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복을 선교와 사진을 통한 영상선교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사진가협회는 협회의 고문이신 안양 대광교회의 엄영수 목사가님이 기독교영상선교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나날이 발전하여 현재 1,02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있고 520여명의 회원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교역자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하여 사진을 배우며 사진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 해에는 더 기

사진으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다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저지스타임즈와 이 신문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교역자와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 이 땅에 고통 받는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더욱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진호 목사
대한기독사진가협회 회장

2012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희망찬 새해



이사장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가오는 친숙한 언어가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입장에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단어를 깨어 포장하기 보다는 2011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해였음에 이의를 달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렇 수박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주신 메시지 그대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단12:4b). 그러니 사실상 지난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박찬 수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된 모습들을 보았고, 소화해 내기조차 어려운 일들 곁을 스쳐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세의 날들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더욱 깨어 있어야하고 주님의 간섭하

심에 예민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제 2012년 새로운 모습의 삼복한 잉크 뱀새가 배어나는 새 달력을 엮는다. 모든 게 새롭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다짐하고 ‘여이~땡!’을 마음속에 외칩니다.

늘 아쉬움 속에 묻어 버리곤 했던 흘러간 세월에 대하여 성취하지 못한 일들을 뒤적이며, 이 해에는 어찌하면 광속도처럼 변화무쌍한 세월의 흐름을 아름답게 향유하며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거룩한 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해로 활짝 열리기를 독자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 하면 얼핏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신나는 일들을 주목하게 될 법합니다.

그러나 먼저 좋은 일이란 제목은 세상 사람들이 퍼뜩 떠올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란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엡5:10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

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후원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더욱 행복한 한해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자신의 잣대로 재고 요리를 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주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쓰임 받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의견에 동의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땅속에 있는 보석보다는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주인에게 더욱 유용하듯이 금년도에는 가지고 계신 은사가 하나도 땅에 묻힌 없이 마르고 닳도록 쓰임 받으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시는 축복의 선언이 바로 저지스 타임즈의 모든 독자에게 임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여 형통하는 2012년입니다. 누구나 형통을 외치고 있고 기도제목에는 감초처럼 등장하는 단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 소원이 주 앞에 열납 되고 응답을 위해서 할 일은 무

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우선 순위를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식이 건강하고, 우수한 성적을 얻기를 간구하지만 주일을 더욱 잘 지키고, 말씀 잘 들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바라는 영적 구함에는 잊은지 오래 되어 버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인간적 목적과 목표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없는 새 해로 한 걸음씩 다가서기를 간구해 봅니다. 할 일 많은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마9:37)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 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일꾼 된 자가 적은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육적기근 뿐 아니라 영적 갈급함에 더욱 목말라 하는 이 때에 기독교정신으로서 온 세상을 품고 달려가는 저지스 타임즈와 함께 뛰어가는 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행복한 자로 선언 받은 저지스 타임즈 가족들이 만류관의 상급을 더욱 쌓아가는 2012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망원)총회

謹賀新年



총회장 황덕광 목사

시편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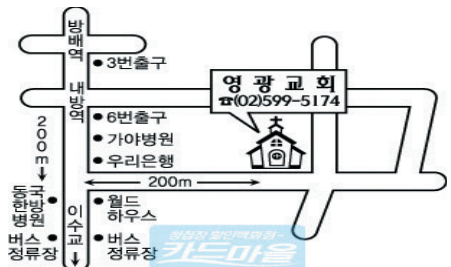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함께하는 새해, 총회와 노회 지 교회가 성장하고
단합하는 웃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황덕광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2012 신년하례회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5-24
- 장소: 영광교회
(원로 최광재 목사, 담임 최 현 목사)
- 일시: 2012년 1월 12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찾아오시는 길



예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 황덕광 목사, 학 장: 강정보 박사
우)121-82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 (로얄프라자 801호)
☎ 02)323-8201, 8202, 팩스 02)323-8203

謹賀新年



대한기독사진가협회

www.christianphoto.co.kr



회장 이진호 목사

희망찬 2012년 전국에 계신 회원여러분,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회원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새해아침 인사 올립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회장 이진호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등 누구든지
가입하시면 회원으로 환영합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대한기독교영상선교회

회장 이진호 목사(부천 성산교회)
연락처 회장 010-9049-4492
고문 010-4930-3090
032-348-4492, 031-384-6826

글로벌 스마트하야방송 개국 감사예배

글로벌 스마트폰 시대, 기독교방송국 선교의 새 지평의 장을 기대하며

하야방송(이사장 유성현 목사, 사랑많은 교회) 개국 감사 예배가 12월 20일 서울역 2층 트레인스웨딩홀에서 하야방송, 하야선한이로 주최, 하야선교회, 땅끝사랑 주관으로 열렸다.

개국식에는 200여 명의 객석이 참석해 하야방송의 개국을 축하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대 기독교방송선교의 새 지평을 여는 하야방송은 히브리어로 “하야”의 의미가 살다, 회복시키다, 소생하다, 부흥하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전할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자 한다.

1부 예배는 최석우 목사(푸른성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미자 사모(도원소망 교회)의 특별한 양이 있었으며, 이기창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설교가 있었다. 김세영 목사(용산교구협의회 총무), 이재창 목사(염광교회), 한동철 목사(보양교회), 남세도 목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의 특별 기도가 이어졌다.

한금송으로 강문중 목사(광명시교회연합회 총무)의 색소폰 연주와 김인규 목사(하야방송 이사)의 헌금기도가 있는 후 이해왕 목사(하야방송 본부장)가 광고를 하고, 신신목 목사(사, 한지철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개국식은 조정봉 목사(새하늘 교회)의 기도로 진행되어 유성현 목사(하야방송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서기행 목사(예장합동총총회장), 이병호 목사(대한민국 ROTC지도목사회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 교회)의 격려사가 있었다.

또한 조용덕 목사(말씀의 교회), 류영철 목사(포도원 교회), 허정인 목사(서울대중앙교회)의 축사에 이어 이종석 장로(하야방송 이사)의 내빈소개가 있었다. 이어 김월환 목사(땅끝사랑 선교회 총재)의 폐회기도와 신응균 목사(사, 한국성경공회 이사장)의 오찬기도로 막을 내렸다.

한편 하야방송은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신앙간증, 다큐멘터리영



상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본방 대표 유성현牧사는 “하야(CHAYAH)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그 뜻과 같이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선한이웃과 같은 방송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야방송은 3년 전 창간한 이후 꾸준히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받아온 기독교 월간지 ‘하야선한이웃(발행인 유성현 목사)’에서 출

발, 그 영역을 문서선교에서 통신선교, 전파선교로 까지 이어가기 위해 개국하게 되었다. 하야방송의 영문 로고는 CHN, 히브리어 CHAYAH의 첫 두 글자와 NEWS(소식)의 첫 글자로 만들었으며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어플 ‘하야선한이웃’을 다운, 인터넷방송은 네이버, 다음에서 ‘하야방송’을 검색하면 언제든지 살아있는 기독교 복음방송을 접할 수 있다.

대천교회(강철 목사) 장로임직예배 드려

김선경, 한창교장로가 임직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짐

장로임직 감사예배가 12월 20일(화) 오후 7시30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대천교회(담임목사 강철) 본당에서 드려졌다.

김동민 목사(중부교회 총무)인도로 장로 임직 감사예배가 시작되어 이재성 목사(남부교회장)의 기도, 대천교회 글로벌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김소라 자매의 특송에 이어 유영섭 목사(총회장)는 “누구의 일꾼인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유영섭 목사는 성탄과 새해를 앞두고 대천교회가 두 분의 장로를 임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1~4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꾼과 충성과 판단 등 이 세 가지가 일꾼에게 필요하다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꾼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요 다른 사

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요, 아울러 충성에는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요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된다고 했다. 또한 유 총회장은 판단하지 않는 일꾼이 되라면서 자신이 남에게 판단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며,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판단 받지 않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 받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열심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하나님은 대천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귀한 일꾼이 필요하셔서 김선경 한창교 두 분의 장로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신실하



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종들이 되어 달라고 했다.

이어 당회장 강 철 목사는 임직자와 교우들에게 서약을 하고, 안수기도와 악수례, 김선경 한창교장로가 본교회의 장로가 된 것을 공포했다. 이어서 지태영 목사(동부교회장)의 축사와 김선경, 한창교 장로의 답사가 끝나고, 당회장 강 철 목사는 임직 받은 두 장로

에게 성경책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또한 박종선 장로(순창교회전교장로회장)가 임직자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선성 장로의 인사가 있는 후 전충현 목사(직전총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날 안수위원은 유영섭 목사, 전충현 목사, 지태영 목사, 이재성 목사, 김동민 목사, 강 철 목사, 한병학 장로 등이며, 한창교 장로는 협동장로에서 시무장로로 임직을 받았다.

칼럼

감사하는 마음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거울삼아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한해가 되어야겠습니다. 크리스찬 작가로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Don Baker)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적의 치료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치료제의 효능은 가히 기적입니다. 모든 증상, 모든 질병에 다 효능이 있습니다.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절대 부작용이 없고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약물과다 복용으로 중독 현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치료제는 완전 무료여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복용하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의 효용성을 임상적으로 확인되고 경험도 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아무때에도 복용해도 되고 수시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이들이 이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 효능을 모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기적의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베이커는 이 치료제를 ‘탱큐테라피’(thank you therapy)라고 불렀습니다. ‘테라피’라는 말은 약에 의하지 않는 치료 요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물, 열음, 증기, 그리고 뜨거운 온도, 차가운 온도를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수치료법(Hydrotherapy)이라고 하듯이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치료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만으로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활기차고 스트레스 적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역경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며,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지고, 수명이 길어지며, 타인의 호감을 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бора 노빌은 “매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만 적어보면, 과거의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또 그녀는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보

면서 신세를 한탄하지만,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첫 걸음은 감사치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속에 감사를 심으면 은총의 열매가 열리지만, 원망을 심으면 저주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꼬이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한 삶은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 때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권세능 목사
주전성교회

KOICA, 한국해외봉사단 20년, 발자취 발간

우리 나라 대외무상원 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지난번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역사를 정리한 <한국해외봉사단, 20년 발자취>를 발간했다.

<한국해외봉사단, 20년 발자취>는 한국해외봉사단의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정리, 수

록하였으며, 봉사단 모집선발, 교육훈련, 파견 후 복무관리, 귀국 후 지원 등 해외봉사단 사업의 전체 절차를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실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단원들의 사례와 소감을 실어 봉사단 사업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함께 정리했다.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은 1990년에 시작되었으며, 2011년 올해에만 약 3,400명의 봉사단원이 대한민국의 통일 봉사단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WFK)란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파견되었다. KOICA는 1991년 출범 이후 한국해외봉

사단 사업을 전담해왔으며, 현재는 WFK 사업본부를 발족, 여러 정부부처에서 운영해온 봉사단들을 WFK라는 단일 이름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KOICA 관계자는 “이 책이 해외봉사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반 국민들의 해외봉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홍보실(031-740-0327)로 하면 된다.

사무국장 권영민기자
kdp0920@naver.com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심야발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주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롭관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층 아동센터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미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력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謹賀新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순회목사)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MB 정부, 불교계 160억 지원 661.9% 증액, 기독교 고작 6억9천

불교지원 기존 21억에서 160억으로.... 정성진 대표 “지원받는 것 부끄럽게 생각해야”.....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불교지원 기존 21억에서 160억으로.... 정성진 대표 “지원받는 것 부끄럽게 생각해야”.....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문광부가 작성해 국회예결산 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불교 263억원, 유교 70억원, 원불교 56억원, 천주교 43억원, 민족종교협의회 16억 6천여만원, 기독교 6억 9천여만 원 순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012년 불교의 종교문화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예산도 기존 21억에서 160억으로 661.9% 증액했다. 종교문화시설은 민족문화의 보존 전승 및 국민의 여가,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에 새로 시작하는 종교문화시설 사업은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을 포함한 종교문화체험시설,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및 베타 세계순례성지 조성, 종교화합을 위한 안동종교타운 건립 등 9곳이다. 이 중에 기독교 문화시설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종교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도 불교가 국제학술대회, 불교문화행사 및 산사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5건 2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교로 청소년 인성교육, 선비문화수련원체험연수 운영 등 3건 15억원을 지원받는다.

천주교에서는 김수환추기경 기념사업을 위해 5억, 민족협회는 겨



레일 살리기 정신 문화사업과 민족종교전승교육 프로그램에 5억7천만원, 천도교 종교문화 활동 사업은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기독교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큰

거 없이 기독교가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종교차별로 잘못된 인식으로 교정이 필요하다. 미래목회포럼 정성진 대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거둔 재정을 종교기관을 통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문화와 복지라

는 측면에서 지원하여 재분배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재정이 국민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개별 종교가 포교나 재산형성으로 귀착되어 축재의 수단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특정종교의 경우 역사박물관을 짓는다고 지원받아 그 종단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혈세를 전용한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계는 종단 운영에 국가재정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종교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종교자체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치권력이

관례적으로 종교를 지원하고 종교가 또한 관례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종단이나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정부의 종교예산 관련 국고지원의 경우는 예산에 대한 편성과정부터 집행까지 공정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종교정책에 있어서 종교관련 예산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정부의 종교 관련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관심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공개하여 국민들이 분명

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종교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며 집행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이 낸 세금이 종교의 영역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관례라는 이름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에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종교문화지원이 너무 전통문화에 치중하고 있는데, 전통문화 못지않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류처럼 다가갈 수 있는 현대문화의 보급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선심성이 되지 않고 종교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의 테러와 도발대비 시급한 때!

애송이 김정은 투쟁업적 쌓기, 김 측근실세 총성경쟁 “도발” 필연

2011년 12월 17일(?) 남침전범집단 수괴, 8.18도끼만행, 아웅산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제1차 서해해전 제2차 서해해전, 제3차 서해해전, 박왕자주부 저격살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 등 무수한 테러 도발원흉으로 최대의 살인폭압독재자가 졸지에 사망했다.

김정일 사망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김일성 무덤에 김정일 미라가 한구 더 늘고 가정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옆에 김정은 사진을 하나 더 걸게 됐다는 것이다. 남쪽 중북준비들에게는 <위수감동 친지감동 새끼감동>주문이 깊어진 것 밖에는 없다.

시한부 인생이 된 김정일이 생전에 2010년 9월 28일 재일교포 귀국자출신 기쁨조 고영희가 낳은 스물여덟 살 코흘리개 셋째아들에게 ‘대장’ 칭호를 붙여주고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 감투를 씌워주면서 여동생 김경희를 대장이라 불러 주었다.



김정일을 공식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오죽열 등 군부실력자를 구석으로 밀어내고 리제강, 류경 등을 숙청하면서 믿을 것은 피붙이 밖에 없음인지 누이동생 김경희와 매부인 장성택을 후견인으로 세우고, 북한 판 태자당 리영호를 3대 세습 호법(護法)으로 삼았다.

김정은과 함께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테러리스트 3인방인 리영호와 김경철이 건재 한데 남침전범집단 수괴이자 국제테러 원흉 김정일 죽음에 맞아죽

고 굶어죽는 북한 동포들에게 축하문이 아니라 위로 조문이라니 차라리 <투항사절>을 보내는 것만 못하였다.

北에서 사람의 값을 매기는 기준은 계급성과 혁명성, 그리고 투쟁경력과 투쟁업적이다. 계급성이란 출신성분과 혈통을 말함이며, 혁명성이란 적화혁명에 목숨 바치는 충실성과 헌신성을 뜻한다. 아무리 유능해도 계급성과 출신성분이 나쁘면 설

북 체제에서는 설령 출신성분

이 좋다고 할지라도, 혁명성이 없으면, 입신출세를 기대 할 수 없으며, 투쟁경력과 투쟁업적이 없으면 위로부터 인정과 아래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를테면 김정남이 비록 김정일의 장남일지라도 김정은에게 밀린 경우와 같다.

그러나 김정은도 북의 3계층 51개 성분 기준에서 복잡계층에 속하는 귀국자출신 고영희 소생이란 사실이 흠결이 될 수 있으며, 세 살 때 “권총을 쏘다”는 거짓말로는 투쟁경력도 업적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양국을 놀라게 하고 질리게 할 도발유혹을 못 버릴 것이다.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와 6.25남침전쟁, 1.21청와대 기습 사건을 일으켰으며, 김정일은 8.18관동점 도끼만행 사건과 KAL858기 공중폭파 테러를 자행 했다. 그런가하면 김정은을 위해 부자 합작으로 2차 핵실험, 박왕자주부 저격살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도발만행까지 자행했다.

아무런 경력도 업적도 없는 김정은이 투쟁경력과 업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3차 핵실험>, <서해5도 기습침공>, <문산철원, 고성 전방지역 포격>, <수도권 미사일발사> 등 초대형 무력도발을 자행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김정은을 둘러싼 군부와 대남공작기관의 <총성의 도발>여지도 간과해선 안 된다.

2012.1.1일 김정은 최고 지도자로 정식 호칭 해 3대 세습에 반대했거나 소극적이었던 세력에 대한 피의 숙청을 벌임과 동시에 식량문제 미해결로 인한 기아와 피의 숙청 공포로 인한 주민불만을 외부로 전가 불출시키기 위해 대형 사고를 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함으로 우리는 테러와 도발을 대비해야 한다.

김정은 생일로 알려진 1월 8일에 ‘조선인민군총사령관’ 감투를 쓰게 될지,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에 ‘조선노동당총비서’로 추대 될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이나 인민군창설일인 4월 25일에 ‘당 군사위원장’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969년 4월15일 김일성 57회 생일선물로 EC-121격추사건 같은 군사모험주의 망령의 부활만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칼럼리스트 백승묵 기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소년원 방문

성경책 150권 선물...결연 통해 지속적인 돌봄 계획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해 성경책 150권을 선물하고 원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중앙공동회장 김홍석 목사, 한재룡 장로, 최초길 인천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석해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김희관 국장은 “아이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며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방문단은 김정규 원장의 안내로 방송실, 사진 작업실, 측량실, 제빵실 등을 둘러보고 원생들을 격려했다. 전용태 장로는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생들과 일대일 영친을 맺고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 개인적인 치유와 가족 치유를 돕는 한편 일자리 연결까지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 선교사 : 김경자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한노회

노 회 장



장 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노회장



오 상렬 목사
승리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
백호살롬교회

회의록서기



송베드로 목사
성령진리교회

회계



유준운 목사
지구촌교회

2012년 새해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배상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흐 7층)
H.P 010-4436-7060

설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2)

계 21:14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보석 성벽의 열두 기초석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신랑 예수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열두 보석성으로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열두 사도 차원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열두 사도들의 신앙의 차원에서 행해진 모든 믿음의 열매가 열두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마 3: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구르는 돌과 같이 큰 가지가 없는 자,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본입니다.

경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려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게 되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출발선에서부터 상을 받고자 애쓰며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자로, 그런 사람은 누구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전 9:24~25)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영생(조예)을 위해 현재의 삶(비오스)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영생(조예)과 하나님의 보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부 보배로운 목격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

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신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다. (벧후 1:16~18)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데는 보배로운 목격이 선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석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영광스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목도케 하시며,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하신 후,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보배로운 목격자

성경에는 보배로운 목격을 경험한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꿀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여 주신 후, ‘모든 땅을 네게 줄 것이며 네 씨가 번성할 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보여준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뵈옵고 목격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보배로운 목격이 나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영적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영적 장자권이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신 후 보여주시 대로 이루셨습니다.

또한 스가랴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일곱 순금 촛대, 금 기를 바른 두 감람나무 가지를 먼저 보여 주신 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 대로 성전을 완공시키신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 스가랴 선지자처럼 베

드로에게도 보배로운 목격이 있었습니 다. 저는 본사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 17:1~3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열세 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은 모습(벧후 1:16~18)을 보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목격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셨음’을 깨닫고,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리라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도 하나님의 보석으로 이루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영적으로 깨달았으며, 후에 순교하여 하나님의 보석성에 열두 기초석의 보석들(계 21:14)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 다.

영적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분량의 믿음을 주셔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벧후 1:17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신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벧전 1: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

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함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존귀함을 받게 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로서서 언급하는 존귀는 ‘금보다 더 귀하게(티모스, 보배로운) 된 존귀(티메, 보배)’로 지극히 큰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존귀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장자들의 총회(히 12:22~23)가 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벧후 1:17~18)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시는 존귀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은 자로서, 예수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앉힌바 된 자(엡 1:5~6)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역사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7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먼저 예비하신 후에 이를 이루시기 위해 세위 가시는 과정을 영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며,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

벧후 1:4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는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벧후 1:13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벧후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은 보석과 같은 약속이며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은 베드로후서 3장13절의 말씀에서처럼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각성시켜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신랑 예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말 3:17)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되게 하십니다.

마 17:5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변형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음성도 중요하지만, 변형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 그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분과 똑같은 영광으로 입힐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보배로운 약속)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심과 같이, 우리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웨스턴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함께 늘어갑시다

나와 함께 늘어 갑시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후반,
그것을 위해 인생의 초반이
존재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체를 내가 계획했다,
젊음은 반을 보여 줄 뿐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것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손안에,

〈서신 가족이신 김인숙 남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출처 '로버트 브라운', 람베 벤 에즈라〉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입을 닫고 귀를 열고
가슴에 축복을 담으십시오.
온 세상이 당신을 축복할 것
입니다.<연>



‘예수님의 품위언어(品位言語)’

예수께서는 언제나 그를 넘어뜨리려는 대적 자들과 특히 예수의 말에 울무를 씌우려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예지언어로 대처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과 사상이 같지 않고 당시의 종교제도를 공격하는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행하지 못했

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울무를 씌워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졌고 당시 사 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세금의 문제를 제기하여 예수를 로마의 법률에 저촉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고 묻는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 바치

는 것이 가하다 하면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고 불가하다 하면 정치적인 울무를 씌울 수 있는 것이므로 함정의 질문을 던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는 ‘네 형상과 굴이여기 있느냐?’ 물으셨고 ‘가이사의 것이 니이다.’ 대답하자, ‘그러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기이히 여겨 잠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직문직답

(直門直答)을 피하시고 비유(比喻)와 우회(右回)를 통하여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언어(知慧言語)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밖에도 안식일의 문제, 죄인의 문제, 예배의 문제, 섬김의 문제 등 수 많은 사건들을 지혜로 답하신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람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14)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 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10:19) ‘세상에



전 아 목사

다움스퍼치센터 대표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니라.’ (잠20:15)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석교회



담임 **성용경 목사**
<웨스턴총회 총회장>

443-8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1170-7
☎031)204-5580 011-721-6038, 010-3938-3983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자학교가 있습니다.



모상연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과정	구분	주요인원	주요전망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박사(M.D.))	전	석제(목교)나 석제(목교)를 통해 목회자(목회)나 신학박사(신학박사)로 진출	주간: 9월~12월(겨울) 겨울: 1월~4월(봄)
	목회(신학박사(M.D.))	전	석제(신학)를 통해 목회자(목회)나 신학박사(신학박사)로 진출	
신학원	신학(신학박사(M.D.))	전	석제(신학)를 통해 목회자(목회)나 신학박사(신학박사)로 진출	
	목회(신학박사(M.D.))	전	석제(신학)를 통해 목회자(목회)나 신학박사(신학박사)로 진출	

2. 전형일정
원서접수: 연중 계속
원서교부: 본교 교무과 0010202-30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임동복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2매

4. 특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부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입학
3) 사목직위자는 원문목사 학위 취득 시 사목직위사 2급, 보육교사 2급, 제사직위사 2급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조광표 박사(M.D.) 연구원 원장: 모상연 박사(M.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전남 순천시 자전동 162-9번지 / 담임 최승리 목사 010-6414-3307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호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1:17)



교단탈퇴공고

하기인들은 2011년 12월 3일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에 공고함

김용복목사, 김성진목사, 김유일목사,
이윤현목사, 김영덕목사, 윤병수목사

칼럼

한파 속 맨발의 소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

“최고의 공직으로 여겼던 법관까지 좌파에 젖어있다면 어디서부터 좌파를 색출해야 할 것인가?”

사계절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삶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겨울이라는 동한기에 한해의 삶을 계획하고 농촌에서는 농기구를 손질해 놓고 봄을 기다린다.

역사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흐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역사드라마 대 백제전과 뿌리깊은 나무 사극은 청취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마치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는 느낌이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국민이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정당정치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다. 오늘의 정당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어린이들이 편 가르키라듯 하듯이 저속한 면들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설치와 민주당의 민주통합당 등 정당구성등의 모습들은 국가경제 발전에 비해 개인주의와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공황을 우려할 정도이다. 북한 김정일 사망이후 미.중.일을 비롯한 국가들이 북한의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죽음에 대해 모든 방송 신문은 쉬지 않고 위원장이라는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연일 특보를 쉬지 않고 했다. 북한이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경의를 표했겠는가 너무 지나친 관심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 문제인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누구의 지시이었겠는가 생각해 볼 사항이다.

삶에 있어 재산은 가족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있는 것이다. 생활 터전이 없다면 불안하며 초조한 것이다. 북한의 실상은 국민 모두가 기아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고에 시달리고 있어 할 수만 있다면 탈북을 결심하고 남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G20경제국으로 자유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다. 틈새의 좌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론을 분열시키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집회 등으로 어린 동심들에게까지 충격을 들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판사의 대통령에 대한 호칭 모독에 대한 글을 보면서 최고의 공직으로 여겼던 법관까지 좌파에 젖어있었다면 어디서부터 좌파를 색출해야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행동까지도 너그럽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인지, 정치인들은 각기 자기의 편리한 정당을 만들어 분열하고, 법관들은 재판의 저울추가 기울어지고, 공직자들은 비리가 정도를 넘는다면 이 국가 사회는 서서히 대양에 잠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청명한 일꾼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여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흙탕물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복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를 임명하여 발전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말보다는 전문지식을 겸한 행동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위선과 거짓이 없다면 진정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어느날 열두살 정도의 정박아 소년이 전철 안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며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질러 서라고 하며 불를 켜 하였으나 사람들의 틈새로 빠져 나가 움츠리는 모습을 보았다. 소년의 발은 꽁꽁 얼어 빨갛게 되어 있었으며 발이 시려워서 뛰고 다닌 것 같다. 그 많은 승객들 틈에 비집고 뛰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구세군의 종소리와 자선냄비는 보이지만 그 어린 정박아 소년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모두가 무덤덤한 표정들이었다. 지금 그 어린 소년을 만났으면 하지만 구제와 사람은 순간을 놓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

모두가 자신은 두터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느냐 주변에 진정 어려운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무정한 사회가 되고 있음을 어찌하겠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나쳐 갔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행동까지도 너그럽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인지, 정치인들은 각기 자기의 편리한 정당을 만들어 분열하고, 법관들은 재판의 저울추가 기울어지고, 공직자들은 비리가 정도를 넘는다면 이 국가 사회는 서서히 대양에 잠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도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활벗고 배고픈 소년에게 밥 한 그릇과 두터운 양말과 신발을 신겨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훈훈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노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모든 기차역마다 노숙자가 없는 곳이 없다. 이러한 것은 어느 개인 기업이 감당치 못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숙자에 대한 생활대책을 세워 사회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연말기간에 연탄배달을 기관, 기업체들이 나와서 하는 모습은 이웃돕기라는 명목으로 생색내는 데 불과한 일들이다.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마련하여 그들이 일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뽑힌 정치인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국가 공장기업을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우 이웃보다 더한 노숙자 문제는 해결 되어 발전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JTNTV생일이사

칼럼

주일 공예배를 포기한 새들백교회

기독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새들백교회(릭 워렌 목사)가 지난 12월 둘째 주일의 공예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지역사회봉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새들백교회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교회 리더십팀은 최근 미국 경제의 위기를 보며 2011년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웃을 섬기는(serving) 활동으로 주말 예배(service)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향해 다가간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새들백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당혹스럽고 걱정스럽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 공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기독교 신앙은 만물의 기원과 존재목적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목적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존재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단지 인간을 위한 집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는 교회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공동체라고 할 만큼 공적인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만일 이것을 포기하거나 부정한다면 교회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에 떨어진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의 공예배를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는 활동으로 주말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 요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주일의 공예배를 이웃을 섬기는 활동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교회의 의미를 전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관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사람을 위한 종교 이어야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독교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창조하신 분과 창조에 있어서 영원히 가지고 계신 창조목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이며, 예배를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공유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는 특권을 허락받은 것이다.

기독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때문에 예배는 공적으로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로서 지체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적인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해체로서의 교회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20세기 말에 등장한 이머징교회관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해체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때 해체는 사역중심의 교회의 개념으로 교회를 말한다. 이는 무형교회 지향적 교회관을 낳게 하는 것으로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러한 교회관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새들백교회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머지않아 한국교회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새들백교회가 제시한 공예배의 포기는 그들의 논리로 생각할 때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사역의 현상이 곧 교회라고 하는 사역중심의 교회관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관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넘어서 철저하게 해체를 원리로 하는 사역중심의 교회의 개념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서 유의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제도적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교회의 특징은 공적인 예배나 모임을 부정하는 가운데 흩어져서 몇 명이든 모인 무리를 중심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는 것을 예배로 여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공적인 모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교회가 가지게 되는 제도적인 요소들을 부정하게 된다. 또한 더 이상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을 필요도 없어진다. 그러한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소위 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다시 실용적인 가치관의 영향과 함께 예배당이 없는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교회주의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본분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를 선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역할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고 본질적인 본분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바른 교회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긴급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종진 목사

인천 민수남부교회



謹賀新年

최음 사랑으로!
최음 믿음으로!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謹賀新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2012교회표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기는 교회가 되자(대상 4:10절)"

담임목사 오종설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 밤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토요 오후 4:00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영년회	토요 오후 6:30

순번	구분	시 간
1	홍남서모이게대미	월요 오전 11:00
2	바룩교실	주일 오전 10:00
3	막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평일시간
5	순례이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순례이	주중 매일
8	제력단련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병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홍성성경대학	오전반 [수.목] 오후반 [화.목]

주 소 : 홍성 홍성로 홍성읍 옥막리 952 번지
전화 : 041- 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 간	시 간	장 소	기 간	시 간	장 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주 일 오후 3:30	대예배실	수요기도회
청년부	토 요 일 오후 5:00	4층	청년대학부	토 요 일 오후 5:00	나사렛성전
청년대학부	토 요 일 오후 5:00	나사렛성전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10:00, 오후8:00	2층 대예배실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10:00, 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4층 나사렛성전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4층 나사렛성전	셀 예배	각 셀 예배	셀 가집회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02)3402-2714

謹賀新年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www.scogop.net

성령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지우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전 수원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지오(지구촌오지)교회건축행전

아프리카 부룬디, 르완다(2)

지난 호에 이어서

11월 30일 수요일, 선교팀은 아침 10시 비행기를 이용해 르완다로 향했다. 40여분 남짓의 비행 후 두 번째 선교여행자인 르완다의 키갈리 공항에 도착했다. 르완다는 부룬디에 비해 비교적 밝고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르완다공항에서 만난 한 현지인은 선교팀 일행들의 작업이 목사라는 것을 알고 반기며 '르완다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공항 앞에는 현지 목사와 선교사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키갈리의 한 호텔에 짐을 풀었다. 짐을 풀고 간단한 헌당식 준비 후 현지(르완다) 12시 30분쯤 두 번째 교회인 우리교회로 서둘러 출발했다. 우리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이해숙 목사) 밀레이 청년부가 르완다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한국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헌당한 교회이다.

20분이면 도착하던 건 곳인데 한 시간 정도를 달려간 후, 드디어 우리교회에 도착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어서 별로 효험이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거리, 시간, 숫자 개념이다. 혹 시나 했던 시간개념이 역시나 었다. 우리교회도 아가페교회처럼 이미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



이해숙 목사, 프레드릭 오솔로(현지) 선교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통성기도 및 안수기도와 결신의 시간도 가졌다. 결신의 시간에는 7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 르완다에 오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부룬디에서 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선교팀은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다. 아프리카로 떠나는 이후 처음 맞는 여유시간이었다. 선교팀들이 목사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식에 호텔 주인은 예정되어 있지 않던 저녁식사를 극진히 대접했

목회자들을 통하여 르완다가 세계선교를 위한 지역이 되기를, 그리고 르완다 복음화를 통해 르완다에도 한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약속했다.

이어진 간증시간에는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한 목회자들이 많은 도전 시간을 보낸 후 선교팀은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다. 아프리카로 떠나는 이후 처음 맞는 여유시간이었다. 선교팀들이 목사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식에 호텔 주인은 예정되어 있지 않던 저녁식사를 극진히 대접했

점심식사 후 선교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친 선교팀들은 비행기 시간

교회건축행전 선교팀은 부룬디에서 르완다 우리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며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있었다. 언덕에 위치한 아가페교회와 달리 우리교회는 높은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이 매우 넓은 나무로 문도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우리교회 성도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교회를 꽃으로 장식하고 내부에도 기둥을 리본으로, 벽을 천막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다. 교회 안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도 어른 못지않게 열정을 다해 입과 몸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교회 헌당식을 진행한 후 급히 달려오느라 식사조차 하지 못한 선교팀에게 현지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감자, 염소고기)를 대접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긴 후 다시 뜨거운 찬양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설교시간이 이어졌다.

다. 이렇게 선교여행의 세 번째 날이 저물었다.

12월 1일 목요일, 선교팀은 12월의 새아침을 르완다에서 맞이했다. 아쉽지만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하지만 선교팀은 그냥 돌아올 수 없어 르완다 현지 목사, 선교사, 교회 리더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60여명 이상이 참석한 이 세미나는 '모든 아프리카에 2011년에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김석수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전도방법에 대해서, 정기환 목사는 한국의 역사와 르완다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했다. 특히 정기환 목사는 르완다와 같이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 복음화를 통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설명했다. 이를 통하여 참가한

에 맞추어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다. 짐을 챙긴 후 아쉽지만 짧은 여정을 뒤로하고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현지시간 18시(한국 12월 2일 오전 1시) 비행기를 타고 케냐의 나이로비, 태국의 방콕을 거쳐 12월 2일 금요일 22시 40분 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에서 비록 대부분의 아침, 저녁식사를 가져간 컵라면으로 때웠지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전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부룬디와 르완다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단단한 뿌리와 새싹이 돌아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더불어 한국의 기적이 부룬디와 르완다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이루어 질 그 날을 기대해 본다.

JTN방송 동행취재 / 김애림 자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마치면서(2)

장한국 목사 외 주사랑교회 7명 선교단원

수요일 밤 세부지역 교회 100여명의 주의 종들과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 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I'll come quickly"을 제목으로 말씀을 영어로 선포했다. 우리말로 설교를 간략히 핵심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세 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우리의 집이다. 당신의 영이 실제당신이다. "Your spirit is real you." 주님 재림 전에 대 환란이 있다.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만약 당신이 순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당신을 신령한 몸으로 만드실 것이다.

주님이 신령한 몸을 임해주시는 것이다. 영적인 몸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몸이다. 하늘에 속한 몸이다. 예수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순교한 성도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제자중 하나인 요한이 밧도 섬에 있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증거 한 것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다. 요한은 영으로 주님을 뵈었다.

주님이 요한 곁에 서 계신다.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양의 혼인식이 있다.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흰옷을 입는다. 이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을 가르킨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들은 형벌 받을 것이다. 또한 음녀 즉 배도하는 교회는 심판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여! 계2:11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 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새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계20:4절을 같이 생각합시다.

"또 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즉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거룩한 도성이다.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리라"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새 예루살렘은 오직 어린양

의 신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들은 대 환란을 통해 순교하였고 부활하여 영적인 몸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놀라운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오 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님 오 시옵소서' 아멘!

필리핀 현지에서의 요청에 따라 나는 3차 필리핀 선교를 2012년 1월중에 다시 세부지역의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대면하여 요한계시록 10장 이후를 강론할 예정입니다. 영어로만 전하기에 표현에 다소 제한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 함이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오직 성령님의 주권 역사에 의지할 뿐이다. 앞으로 필리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어권에 요한계시록을 증거 하여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탁 드리 건데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기도로 동참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예화' 돼지의 불평

돼지가 하루는 암소에게 평소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다.

암소야, 너도 보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니? 사람들은 내 고기로 햄과 베이컨을 만들어 먹잖아? 또 내 창자를 빼내 순대를 만들어 먹고 심지어는 발도 족발로 만들어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할까?

암소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너만 먹잖아? 그러나 나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또 맛있는 우유도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너는 싫어한다. 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어차피 죽으면 남에게 다 주고 가야 한다. 그러니 살아 있을 동안에 남에게 많이 베풀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베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예정웨신총회 2012년 강도사 고시 시행공고

2012년도 강도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고시일시 : 주후 2012년 2월 23 일 (목) 오전 10시
2. 고시장소 : 총회본부 (아래 주소 전화 참조)
3. 고시과목
 - ① 조직신학 : ②교회사 : ③교회헌법 :
 - ④논문 : 본인의 목회관(A4용지 20매 이상)
 - ⑤설교 : 설교문 제출 (약 10분정도의 분량)
 - ⑥면접 :
 -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나 웨신총회 직영 신학교 졸업자,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는 필기고사(조직신학, 교회사, 교회 헌법) 면제함
4. 고시료 : 300,000원
5. 접수기간 : 주후2012년 2월 13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 서류 제출시 논문, 설교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처 : 총회본부(사무실) 아래 주소 참조
7. 응시자격 : 웨스트 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졸업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 졸업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 상세한 내용은 총회 사무실과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아래 주소 전화 총회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참조
 - 총무 : 신언창 목사 010 - 8602 - 3009
 - 강도사 고시 청원서는 총회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총 회 장 성 흥 경 목사

고시부장 김 춘 택 목사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복음) 총회

총 회 장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 원장)

총 회 장 곽동훈 목사
부 총 회 장 김기섭 목사
정은섭 목사
서 기 장백항 목사
부 서 기 한창현 목사
회 록 서 기 서정일 목사
부회록서기 전희권 목사
회 계 박종숙 목사
부 회 계 곽인숙 목사
총 무 강정자 목사

총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59-1
문성빌딩 3층 303호

☎ 02)2632-4463 H.P 010-7405-919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150-85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동 442-105번지 201호
☎ : (02) 835-2607 FAX : (02) 835-2608 <http://ws21.onmam.com>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프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저지스타임즈 사장
국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성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가정예배

1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인내하며 충성할 때

성경: 여호수아 11장16-23절 찬송가 546장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 주도된 가나안 진압 전쟁은 이제 그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단시일 내에 모든 영토를 확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연합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맡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충성하고 순종하여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 여호수아 12장1-6절 찬송가 204장
본문을 보면 정복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다스리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이방인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충성하였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가정

성경: 여호수아 12장7절-24절 찬송가 273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 하여 패배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명예와 권력과 물질은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헛된 세상 것을

쫓고스는 가정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쫓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성경: 여호수아 13장1절-7절 찬송가 78장
본문을 보면 백전백승의 명장 여호수아도 늙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특정 인물이 없다고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그 분의 목적대로

성경: 여호수아 13장8절-33절 찬송가 217장
본문을 보면 접령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을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을 세워 나누기 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정확히 누구에 의해 나온 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분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6.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성경: 여호수아 14장1절-5절 찬송가 429장
본문을 보면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땅의 분배가 사람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되어지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들이 소유하는 땅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헛된 허영심과 욕심에 빠져 살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성경: 여호수아 14장6절-15절 찬송가 333장
본문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등장하지 않던 갈렙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탐했던 땅을 직접 공격하여 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젊고 늙음이 없으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이것을 명심하여 내가 늙고 힘없다 하여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성경: 여호수아 15장1절-12절 찬송가 221장
본문은 유다 지파가 부여 받는 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다 지파가 받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그 한계와 분수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지나친 열심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선한 과정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9.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

성경: 여호수아 15장13절-19절 찬송가 368장
본문을 보면 웃니엘이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갈렙의 딸 '약사'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웃니엘의 모습은 현재의 시대에 쉽게 만나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젊은이들에게 우습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자녀 만큼은 웃니엘이 '약사'라는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 힘써 노력한 것처럼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데 신중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또한 나 자신을 아름다운 반려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가정

성경: 여호수아 15장20절-63절 찬송가 362장
본문은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유다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 예전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에게 특별히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성경에 세세히 쓰이는 특권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이러한 특권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다지파가 누렸던 특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성경: 여호수아 16장1절-10절 찬송가 545장
본문을 보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더라.' 이는 에브라임이 므낫세 보다 큰자가 되리라고 한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내 생각 보다는

성경: 여호수아 17장1절-13절 찬송가 421장
본문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영토를 분배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들을 쫓고 스아내지 못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훗 날 자신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만큼은 내 생각보다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경: 여호수아 17장14절-18절 찬송가

429장

본문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땅 삼림에 올라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였지만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땅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한 자들이라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깨닫게 있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충성!

성경: 여호수아 18장1절-7절 찬송가 288장
본문을 보면 므낫세 반 지파의 분배가 끝나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12 지파 중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정복 활동도 중단 된 것을 보여 줍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모와 여유

노예를 해방시킨 믿음의 대통령 링컨은 짧은 날 교토비가 없어 자주 걸어 다녀야 할 정도로 가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진 사람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정직과 여유와 유머가 있었습니

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미래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링컨은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교통비가 없어서 그냥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역마차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지나가는 그 역마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스프링필드까지 제 이 무거운 코트 좀 운반해 주십시오."

마부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젊은이, 무겁다고 그 코트를 벗으면 추워서 어떻게 하오!"

그러자 링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왕이면 이 코트 속의 제 몸도 함께 넣어 운반해주시지요, 하하하!"

둘은 웃으며 추운 겨울 먼 길을 따뜻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얼마나 훈훈했겠습니까? <이주연>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영적인 사랑의 에너지는
회개를 통하여 임합니다.<연>**

이주연의 산마루서신에서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GIROUN CHURCH a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랑 목사

담임목사 정일랑, 유성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원예배	오후 3:00	영락원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謹賀新年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종교와 위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제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 50명 이상
주일 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8:00	본당	월요일도회
각구별예배	각구별 지정시간	각구별 2부 강당	매월 마지막 주에만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2층	취학 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2층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생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등 및 동급생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광교회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한복운본부 정기총회 열고 복음위해 전통계승을 다짐

1964년 10월 16일 '한국복음화운동' 발기대회로 47년을 맞았다



총재 피종진 목사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1964년 10월 16일 '한국복음화운동' 발기하고 2011년 12월 19일 정기총회를 열기까지 47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대총재는 한경직 목사, 제2대 총재 신현균 목사, 제3대 총재에 피종진 목사를 추대하고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사)한복운 정기총회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남서울중앙교회에서 개최되어,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부총재 김중기 목사가 기도, 문화회장 최병일 목사는 요한복음 7:37~39절을 봉독하고,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는 "목마른 인생 여정"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총재 김진복 목사, 북한동포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수석여성부총재 오영자 목사, 한복운의 발전과 사역을 위해 부총재 길영



섭 목사 등이 나섰다.

이어 여성수석상임총무 김향두 목사가 헌금송을 불렀으며, 주향 예술선교단의 위임찬양이 있은 후 수석상임부총재 박희종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오찬에 이어 2부 회무처리가 지난 11월 월례회 때 정관개정을 통과하고 임원들이 확정되어 2012년 회기에 더욱 분발할 것을 상호 결속을 다짐했다. 또한 기존 직급에 '수석'을 삭제하고 서기가 총무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명명하고, 직제를 좀 더 효율적인 실효를 위한 체계적인 구조로 변경하는 등 지역총재 교회에서 헌신에 배를 주회하게 된다.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는 헌신

예배를 통해 한복운의 사역소개와 홍보를 극대화하고 헌금은 작은 교회를 돕는 방향을 잡고 CMS 계좌로 사업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에 열심히 목회하며 부흥한 교회들이 대부분 한복운 임원이라는 이점을 안고 있어서 월례회 또는 헌신예배를 통해 탄력적인 운영에 힘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임원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 △여성대표회장 정명희 목사를 주축으로 각 부총재 및 회장단, 총무를 비롯한 여성수석총무 및 국장, 지역총재 그리고 여교역자 순으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이날 인사말씀에서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는 한국복음화운동이

발기가 되어 47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복음화 운동의 전통계승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피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이 그림습니다."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어릴 적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늘 한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마음과 교회성장 모델로 삼았을 정도로 그 분의 선한 눈매와 미소가 그림습니다"

피 목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고 신현균 목사의 차석으로 일했고 신 목사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발족해 열심히 복음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또

한 피 목사는 지난 1980, 84, 88, 92 세계복음화대성회(여의도광장) 최연소 주강사라는 별명을 만든 귀한 은혜에 힘입어 오늘의 부흥사가 됐다고 말한다. 항상 존경하고 있지 못하는 분은 한경직 목사였다고 말하면서 한국복음화운동본부의 결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란다는 역사성과 자긍심을 갖고 전진만을 거듭할 것을 다짐했다.

초대총재에 한경직 목사, 제2대 총재 신현균 목사, 제3대 총재 피종진 목사를 추대해 한국복음화의 맥을 이어가는 '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다소 주춤했던 한국복음화의 전통성과 열정을 계승하고자 재정비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 여성대표회장 정명희 목사 등과 전국 지역총재 및 총무진 등이 조직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복음화운동본부(한복운, All Korea Evangelization Movement Center)는 AKEM 영문약자로 표기하며 오직 성경말씀에 입각한 복음적 초교파 연합단체로서 한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한다는 취지 아래 ●성령운동 ●복음화운동 ●개혁운동 ●통일운동 ●부흥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정대성 임찬미 목사 목회부문 대상 수상

한국부흥사협의회 2011 연말대상에서

14명이 각 부문대상 받아



대상받은 정대성, 임찬미 목사(부부)

한국부흥사협의회(이하-한부협/대표회장 정민철 목사)가 주최한 한부협 2011년 연말대상 시상식을 12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남현교회(담임 이춘복 목사)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한부협 부총재 장창윤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국제명성교회 북 찬양단의 연주가 진행되었다. 이어 상임총재 김원철 목사는 엡4:11~12절을 인용 "사명 따라 살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목회부문 대상은 정대성 목사, 임찬미 목사(광주 온누리찬양교회) 부부가 수상했으며, 선교부문 박명순 목사, 정원도 전도사, 전대박 전도사, 전도부문 이교은 목사, 언론부문 이재환 기자, 이춘국 기자, 백현우 기자, 찬양부문 김동화 전도사, 송정숙 전도사, 기도부문 오연실 전도사, 봉사부문 김형숙 전도사, 강귀숙 전도사 등이 수상했다.

이날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11대상시 상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다. 또한 항상 주님의 사역이라면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깊이 뿌리를 내려 충성을 하는 자들을 선정하여 각 부문의 대상을 시상하게 되어 이 좋은 날 수상자 모두를 축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어 쓰임을 받는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길 바라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자 하는 사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또한 정 대표회장은 새해 2012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태우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사역자, 동역자들이 되어 달라며, 수상자들, 참석한 모든 내빈들과 가족들을 향해 감사로 인사했다.



카리스 토탈 솔루션 개소 예배드려

지난 17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2층 국제 결혼상담소에서 카리스 토탈 솔루션(대표이사 정태웅)개소식이 진행되었다. 결혼상담소 소장은 정태웅 대표로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상담소를 개소한 것이다. 정 대표는 정성택 목사의 차남이다.

정 목사는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로 사역했다. 그는 가령 소재 현리 치유센터를 아내 김인수 목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 목사 내외는 부흥사로서 사역에 열정적이다. 정 목사의 장남은 전도사이며 덕

망 있는 사역자이다. 또한 정 목사의 가정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 부인 김인수 목사는 현리 치유센터와 카리스 타임즈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 목사는 카리스 다문화 가정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등 온 가족이 목회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온누리사랑교회 김연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선민교회 김현복 목사의 대표기도, 카리스 타임즈 발행인 김인수 목사의 특별찬양, 영광교회 홍종기 목사의 설교, 햇살교회 김진홍 목사의 헌금기도, 빛과소금교회 이재갑 목사의 축사, 카리

스다 문화 가정연구소장 정성택 목사의 광고가 있었다.

개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홍종기 목사는 "유익을 주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의정부사랑교회 송영호 목사의 축도로 있은 후 케익절단이었다. 정 대표이사는 광대호 목사(지구촌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어 인사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카리스 토탈 솔루션이 한국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



과 함께 인사했다.

한편 카리스 기획사는 교회 전도지, 전단지, 명함 등을 제작하며, 카리스 타임즈 창간호를 내년 1월부터 발행된다고 한다. 카리스 토탈 솔루션은 요1:16절

말씀인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의 은혜러라"는 말씀을 신조로 출발했다고 한다.

사무국장 광영민기자
kdp0920@naver.com

소진우 목사 2010년-2012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티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0년 8월		17~20	동서울 성현교회(라계동 목사)
2~5	수도산기도원(이영이 원장)	22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	주님의 교회(양한기 목사)
9~12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18	경성교회(이정근 목사)	25~27	초대교회(이종호 목사)
23~25	전점오남지역 연합성회(이원경 회장)	28일	친왕이님저는 교회(김형주 목사)
26	양평금식기도원(임기호 원장)		
26~27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30~9.1	푸른초장교회(김종철 목사)		
2010년 9월		2010년 11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3	신천장로교회(강형규 목사)
6~8	퇴계원장로교회(김동진 목사)	8~10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3~16	교단총회	15~17	수원평안교회(김원구 목사)
15	정동교회(백현기 목사)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20~24	인도선교교회(벵갈로)	26	소망기도원(연인애)
26~28	성산성결교회(안성기 목사)	28	임이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29~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00선교지방문
2010년 10월		2010년 12월	
3	천보산기도원 (유택진 원장)	3	갈멜산기도원 (임예재 원장)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업 목사)
8	한얼산 기도원(이영금 원장)	13~15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11~12	정기노회	20~24	00선교지방문
12~14	주영광교회(김상욱 목사)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	갈멜산기도원 (임예재 원장)	27~29	논개일교회(소도영 목사)

2011년 1월		2011년 2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31~4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훈 목사)	6	효창중앙교회(최복대 목사)
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7~9	술산반석교회(김영진 목사)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3	감리교단 제직세미나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6~19	성미교회(권동희 목사)	20	한강중앙교회(최정규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23	미수교회(전영우 목사)
24~7	갈멜산기도원(이국란 원장)	24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2011년 4월	
7~10	성서교회(편재영 목사)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동하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0~12	정기노회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12~14	장성교회(이광구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20	내국교회(함영민 목사)
		25~27	신광정로교회(이광수 목사)
봄철축복대심방		2011년 5월	
7~10	성서교회(편재영 목사)	2~4	서울서지방어전도연합성회
13~16	월계성도교회(김동하 목사)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최정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선진교위원회)
2011년 6월		2011년 7월	
6~8	소망큰교회(이용찬 목사)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7(금)	갈멜산기도원 (임예재 원장)	11~15	신화생여름특별세미나
20~22	청명나루교회(성낙근 목사)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6~7.2	신학발기대회성회	23	갈멜산기도원 (임예재 원장)
		25~27	원주별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8월		2011년 9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9	온누리복음화협의회(임기호 총재)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2~15	동굴 할렐루야! 교회(전 용 목사)
8~11	관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5~18	감람산기도원(이국란 원장)	19~22	교단총회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4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10월		2011년 11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3~5	양주 비전교회(김학현 목사)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10~12	진전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 (박건익 회장)	14~16	주안성결교회(진영하 목사)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19	은천교회(허세돈 목사)	21~24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3~26	성산교회(송양동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	오산리 금식기도원	28~30	서광교회(김정수 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재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광릉교회(김상욱 목사)		
2012년 1월		2012년 2월	
6	오산리 금식기도원	2	양평 기독교연합회 연합성회
2~4	천성교회 (김 영 목사)	6~8	갈멜산기도원(이국란 원장)
9~12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13~15	신광정로교회(이광수 목사)
16~18	신광교회(정규호 목사)	19~22	평강교회(박영주 목사)
23~26	관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7~29	선한이웃교회(정영호 목사)
30~2/1	원동교회(송우중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명성교회, 24일 새 성전입당예배 축제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교계 인사들 참석 축하

새 예배당 입당예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국회의원,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김영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위근 여장통합 총회장, 립인식 전 여장통합 총회장, 이용규 전 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담임목사, 장종현 백석대 총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등 정계, 재계, 교계 인사들과 명성교회 성도들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의 설교를 맡은 한국 교회 최고의 원로 방지일 목사는 “주님 계신 곳”(고전3:16)이라는 설교를 통해 “명성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예배당 건축을) 해냈다”고 축하했다. 방 목사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환 담임목사는 “1980년 7월 6일, 20여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린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개척 3년만에 주님의 은혜로 1차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후 계속된 성장으로 1990년 2차 새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였다”며 “그 크신 은혜로 오늘날 명성교회는 10만여 성도의 교회로 부흥성장하여 더 많은 예배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고 새 예배당 건축의 당위성을 밝혔다.

김 목사는 이어 “이에 모든 성도들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우



명성교회 담임 김삼환 목사

김 목사 “10만여 성도의 교회로 부흥성장하여 더 많은 예배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고 새 예배당 건축의 당위성 밝혀

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늘, 새성전을 허락하시어 입당하게 되었다”며 “이는 마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황금찬 원로시인과 함께 자신이 직접 작시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낭송했다.

연건평 8028.51평으로 지상 5층, 지하 4층의 7,200명을 수용하는 대예배실, 지하 1층의 620석과 730석의 소예배실 등으로 구성된 새 예배당은 2009년 10월 터파기 작업을 시작해 2년 3개월만에 입당예배를 드렸다.

김삼환 목사는 2009년 8월 새 예배당

기공예배 당시 설교에서 “남북통일과 온 인류 구원 사명을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 교회 성장과 섬김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마음으로 새성전 거룩을 기도해 왔다”며 “명성교회 새성전은 한국, 아시아, 세계교회 부흥과 섬김과 나눔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성교회 성도들은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 매일 기관별로 기도를 했다. 김 목사는 “이웃 주민들과 마찰 없이 공사를 마쳤고, 공사기간 중 교인들도 어떤 이견이 없이 합일했으며, 공사기

간 중에 건축자재 파동 등이 없었고, 늘 좋은 날씨를 주셨다.” 감사의 고백을 했다.

명성교회는 소년소녀가장, 농어촌 목회자 자녀, 홀사모를 위한 명성복지재단 ‘가나안의 집’과 광주, 순천, 전주, 목포, 대구, 부산을 비롯한 7개 도시에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설립, 21세기 문화선교 사역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한 월드글로리아센터, 치악산 명성수양관, 캄보디아 명성선교센터, 명성교회 도서관, 명성하남여린이집,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 필리핀 마닐라한국아카데미, 성소병원, 명성아카데미하우스, 영광여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우물선교, 문화선교, 영농선교 등을 펼치고 있다.

이날 입당예배에서도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 논현동고시원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유가족, 상용자동차 사망자 유가족,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강동지역교회협의회 미자립교회, 거리의 천사들(노숙자 사역기관), 한 정협(탈북 북한주민 정착을 도는 기관), 홀사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서해안 원유 유출 피해 가정, 북한동포돕기, 양평예일교회 개척지원, 다문화가정 소년, 소녀 가정, 성남 소망의 집, 천안함 연평도 피해자 유가족, 하남 비닐하우스 화재 가정 등에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박근혜의 쇄신, 반발과 저항 줄속도 감수해야

內賊평정, 外敵대비, 생사초월, 환골탈태, 건곤일척 결단 필요

집권 한나라당이 MB의 실정과 MB계의 독선 족주로 인해 국민의 신망을 잃고 과국을 치닫게 되면서 2004년 탄핵역풍 속에서 소멸직전의 당을 사력을 다하여 회생시킨 박근혜 전 대표에게 또 다시 당의 운명을 맡기게 됐다.

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보선 패배와 DDs공격이라는 자살골로 인해서 지도부가 와해되고 당의 존망 자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12월 1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전 대표를 참석 전국위원장 527명이 만장일치로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였다.

이날 박근혜 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서 “당이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외면 받게 됐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비대위원장으로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출사표를 던졌다.

그로부터 불과 10여일도 안 돼서 한나라당을 망쳐 놓은 MB계를 비롯한 전임지도부와 그 측근인사들이 비대위 구성과 일부 비대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권(全權)을 위임>하겠다고 한 전국위원회 만장일치 결의와 참석자 스스로의 약속을 깨고 박근혜 등에 칼 꽂기와 비대위 흔들기에 광분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에 대하여 야권의 반대나 비난은 어쩌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과 4년여 만에 당을 갈라리 찢어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아직 걸음마도 안 댄 비대위를 ‘점령군’ 운운하면서 헐뜯고 설쳐대는 꼬라치니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오뉴월 것볼도 쪼다가 물러나면 서운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주류잡시고 호가호위하면서 청와대 눈치나 살피고 이재오와 이상득 등 실세의 비위나 맞추기에 급급했던 눈치 族, 아무군살들이 알아서 반발하는 모양새에서 극치에 달한 쫄마니 정치 양아치 떼를 보는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비대위 구성과 관련 특정인의 전력과 사적발언 시비를 걸면서 사생결단식 비난과 저주를 퍼붓기에 급급한 소인배와 경망스러운 ‘이빨’들에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2007년 7월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MB의 멘토 김진홍이 맨션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

그 당시 김진홍은 BBK와 다스, 영포빌딩과 도곡동 땅, 위장전입문제 등 MB의 도덕성 논란에 대하여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손도 베고 그릇도 갠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시대에 힘 없는 사람은 쪼다”라고 했던 명언(名言)에 기반한 응대라고 패재를 부르던 자들의 추한 모습을 뒤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박근혜 비대위가 할 일이 내적으로는 ▲인적쇄신 ▲공천개혁 ▲당의 면모 일신이며, 외적으로는 ▲국가안보 ▲정국안정 ▲국민피부에 닿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장래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갖도록 함으로서 신뢰를 회복하여 떠나버린 민심을 되돌리는 난제를 불과 30~40일 만에 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새롭게 결집하고 있는 야권 종북반역 투항세력의 단말마적 발악도 문제이지는 않지만, 中道を 표방하면서 노골적으로 종북세력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 기회주의자와 정통애국의 아이콘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슬그머니 생략(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유산만 강조하는 반쪽자리 위장보수 집단의 한나라당 파과 분열음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초비상 국면에서는 원내든 원외든 계파를 초월하여 한나라당원은 물론이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도 자기희생과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사느나 죽느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협동단결과 자기희생은커녕 악다구니나 벌이고 있는 자들은 원내의 불순세력과 결탁한 해당분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참모하는 다수가 입이 없어서 말을 잃은 것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J모와 C모 그리고 H모 등의 과거전력과 언동에 책잡고 추궁할 일이 없어서 무분별한 <갱판치기>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책임을 맡긴 지 열흘도 안 돼서 흔들어 대는 것은 인간의 도리도 정치인의 할 짓도 아니다.

비대위에 전권을 맡긴 이상 결과에 대한 책임도 비대위가 전적으로 지게 돼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라 초등학생도 알만한 상식이다. 한나라당을 이 꼴로 만든 진이 주류와, 박희태, 정몽준, 안상수, 홍준표 등 구지도부 관련자들은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그렇지 않으면 세 불리를 느낀 손학규가 2007년 3월 19일 했던 것처럼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면 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상태는 고름이나 짜내고 몇 주 기브스나 하면 멀쩡하게 낫는 경환자가 아니라 전신 골절에 장 파열, 염통, 콩팥, 간, 쓸개, 위 내장, 안면화상에 뇌손상까지 경각을 다루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골격에서 내장은 물론 두뇌와 안면 수술까지 그야말로 환골탈태가 아니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절체절명의 중환자이다.

박근혜는 합법적으로 전권을 위임받은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여유를 부릴만한 시간도 없다. 부분 개혁이 됐건 전면쇄신이 됐건 변화에는 희생과 손실이 불가피 한 만큼 반발과 저항 음모와 술수 또한 난무하게 마련이다. 연작(燕雀)의 투위터질 때문에 홍곡(鴻鵠)이 돌아나서는 안 된다. 방향이 정해지고 진용이 짜이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고 질풍노도처럼 물아 불어야 희생의 기회와 승리의 찬스를 잡고 구국의 대임을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사를 가르쳐 초태형 수술에 앞서서 병통전단 및 수술계획수립, 수술팀 구성과 수술도구 준비와 함께 수술 전 ‘청결 소독’이 필수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극약처방도, 재삼을 도려내는 희생과 아픔, 극단적 모험의 시도나 독단도, 생명을 위탁받은 주치의이자 집도의로서 비상대책위원장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실에 입각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 작전 편에 “전쟁에 있어 그 속씨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빨리 끝내야 함은 틀렸어도, 속씨 있게 하면서 오래 끌어야 함은 보지 못했다. 무릇 전쟁을 오래 끌어서 나라에 이로운 것은 없다”는 뜻으로 <兵聞拙速(병문졸속)未睹巧之久也(미도견지구야) 夫兵久而國利者(부병구이국리자) 未之有也(미지유야)>라고 질질 끌어서 좋을 게 없다고 한 졸속(拙速)의 함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명성교회 입당예배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장막터를 넓히자-----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세계선교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자 --- 섬김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 --- 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 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랑 최원희 박에스터
협동전도사 : 김신애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정대성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 : 정대성 목사(선교사)

장로 : 최원영(선교사)

부목사 : 임찬미(선교사)

선교목사 : 조에스터 목사

협동목사 : 이충일(의료선교사/의학박사)

선교사 : 함다니엘, 황연화, 최미란

전도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김혜정

안수집사 : 강보송, 유신성

찬양지휘자 : 유신성 집사

반주자 : 정선미, 김진복, 박신애, 박시은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일.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전국노회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

노회장 김연준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김연준 목사

(158-841)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561-5
☎02-2608-0591 010-4166-2307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향노회

노회장 정태종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정태종 목사

(142-600)서울시 강북구 우재국사서함20호
HP 010-5116-8457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노회

노회장 이영중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이영중 목사

143-826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9-43
☎02-443-5153 HP 010-8702-3927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 조철준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조철준 목사

573-873 전북 군산시 문화동 549-21
☎063-467-9491 HP 010-3944-9491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박영남 목사

200-11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HP 011-364-4280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노회

노회장 정기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정기완 목사

420-8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9-5(전원마을)
HP 010-2956-9191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노회

노회장 지영철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지영철 목사

134-351 서울시 강북구 성내동 559-3
HP 011-413-1229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노회

노회장 김성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김성남 목사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3동 149-1
HP 019-633-1710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

노회장 정성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배상

노회장 정성택 목사

477-823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평리 185-3
HP 010-7130-339

대한예수교장로회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동노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이정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노회장 신동근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노회장 심순범 목사

파종전 목사 1월 국내·외 성회 일정

1(주일) 새벽 1(주)~ 3(월) 오산리회자심기남금기도원(원장 조희원 목사) ☎(031)947-0091
4(수) 저녁 부천 천성교회(이항원 목사) ☎(032)684-3981
5(목) 저녁 용인 성산수원관(원장 윤종근 목사) ☎(031)322-9196
6(금) 오전 평화외동신학성(피종전 목사) ☎(041)852-2211
7(토) 오후 서울 능곡신학교(임운선 목사) ☎(02)937-5471
8(주일) 오후 논산출연소 진중세례식, 연무대교회(원장 오정호 목사) ☎(041)742-3553
9(월)~11(수)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12(목)~14(토) 서울 강남성수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13(금) 오전 서울 시문성교회(임우진 목사) ☎(02)843-8885
14(토) 오후 서울 대명교회(송인규 목사) ☎(02)696-0693
15(주)~18(수) 남서울중앙교회(이찬근 목사) 제직세미나 ☎(02)3411-9191
19(목)~21(토) 일산 양우리교회(이정찬 목사) ☎(031)923-8947
22(월)~25(수) 부산 JSV 위성방송센터연합성회(이장 피종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26(목)~28(토) 충주 금식수원관(원장 김승자 목사) ☎(043)853-3990
구미 선산소망교회(이성순 목사) ☎(054)481-1941

피종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98
010-5255-7777
jontan777@han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3411-7770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謹賀新年

“태망의 2012년 한 해 교단과
전국 각 노회와 섬기시는 지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며 축복이 넘치는
사역의 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총회장
성흥경 목사
수원송석교회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부천은천교회서기
장창운 목사
열린찬양교회부서기
정일랑 목사
향기로운교회회의록서기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부회의록서기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회 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부회계
유윤주 목사
지구촌교회총무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울교회감사
정기완 목사
주복음교회감사
이규 목사
동산교회

웨 신 총 회

총무: 신언창 목사 010-8602-3009
서기: 장창운 목사 010-5678-9950총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1835-2606-7 팩스 021835-2608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E-mail: sec21ch@hanmail.net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 정 기 완 목사 (D.Ed., Th.D.)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헐어 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시단법인 기독교술원 이사장 ◆세계원주인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원 총재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제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스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 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연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 학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변학기 교수진

정기완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웅교수(교대근동학) : (Ph.D.)慶University of Sydney (美)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임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 (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